

스포츠

8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WNBA 무대 도전 위해 박지수 라스베이거스행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 27일 개막전



박지수

한국여자농구의 ‘보물’ 박지수(21·KB스타즈·라스베이거스)가 또 한번의 도전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떠났다.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의 박지수는 25일(한국시간) 개막할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기 위해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소속으로 WNBA에서 첫 시즌을 소화한 박지수는 자신의 두 번째 시즌에 나선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마음이 한결 가볍다. 박지수는 2018~2019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에서 소속팀 청주 KB스타즈의 통합 우승(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상(MVP)도 박지수의 몫이었다.

프로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박지수는 이 기세를 몰아 WNBA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점점 넓혀간다는 생각이다. KB스타즈는 “작년에는 구단에서도(박)지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몰라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이 상황을 한 번 겪으니 올해는 준비과정이 더 쉬웠다. 지수도 한결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는 20일 미네소타와 시범경기를 펼치며 27일 LA스파스와 홈경기를 시작으로 새 시즌을 맞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손흥민 빠진 토트넘 UCL 아약스전 0-1

BBC “1차전 손흥민 공백 컸다”

손흥민이 결장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아약스(네덜란드)에 패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약스와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홈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전반 15분 아약스의 도니 반 데 비크에게 내준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이날 토트넘은 경고누적으로 결장한 손흥민을 비롯해 부상 중인 해리 케인, 에릭 라멜라 등 주축들이 대거 결장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은 안방 UCL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도 “토트넘 공격은 손흥민과 케인의 공백이 컸다.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뜻하지 않은 홈 패배로 토트넘은 굉장히 절박해졌다. 아약스와의 2차전(원정)에서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펼 손흥민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BBC는 희망을 노래했다. “(1차전에서) 토트넘은 2진이 나섰다. 결정력도 부족했다. 토트넘의 UCL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원정이지만 2차전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K-1 전설’ 제롬 르 밴너, 18일 로드FC 053 상륙 | 데뷔전 상대는 ‘쿵푸팬더’ 아오르꺼러



제롬 르 밴너(오른쪽)가 18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중국의 격투기 스타 아오르꺼러를 상대로 로드FC 데뷔전을 치른다. 사진은 제롬 르 밴너와 아오르꺼러가 맞붙는 굽네몰 로드FC 053 제주의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 | 로드FC

‘무관의 제왕’ 밴너, 그때 그 ‘핵 펀치’ 살아있나

아츠·크로캅·후스트·헛트 등과 입식타격 전성기 지배한 레전드

“상대도 타격 좋아…재미있을 것
케이저서 내 건재함 증명하겠다”
- 밴너



‘무관의 제왕’ 제롬 르 밴너(47·FREE)는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제롬 르 밴너는 18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053 대회에 출전한다. 중국 최고의 격투스타인 ‘쿵푸팬더’ 아오르꺼러(24·XINDU MARTIAL ARTS CLUB)를 상대로 로드FC 데뷔전을 치른다.

제롬 르 밴너는 과거 K-1 시절부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파이터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화끈한 경기 스타일로 골수 팬이 유독 많은 파이터다.

커리어 동안 ‘빅네임’들과도 많이 싸웠다. 피터 아츠, 미르코 크로캅, 어네스트 후스트, 마크 헛트 등과 링 위에서 승패를 놓고 기량을 겨뤘다. 그런 그가 이제 아시아 최대 격투기 단체 로드FC에 상륙한다.

제롬 르 밴너는 “로드FC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부상을 치료하고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이제야 경기에 출전해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출전 소감을 전했다.

상대 아오르꺼러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

상대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를 할 상대이기에 영상을 찾아봤다. 큰 덩치에 비해 유연하고, 빠르고 타격이 좋더라. 나와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제기되는 노쇠화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누구와 싸워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말로만 강하다고 하지 않겠다. 케이저 위에서 직접 보여 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로드FC는 18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굽네몰 로드FC 053 제주를 개최한다. 굽네몰 로드FC 053 제주는 로드FC 역사상 첫 제주도 대회로 ‘끝판왕’ 권아슬과 도전



자 만수르 바르나위의 100만 달러 토너먼트 최종전이 열린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새로운 40년 기약한 KLPGA챔피언십

성공적으로 치른 41회 대회의 의미

한국여성프로 탄생과 함께한 대회 역사적 현장에서 최혜진 메이저 첫승 해외투어 스타들도 참가 대회 빛내

‘아름다운 도전은 역사가 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살아 숨쉬는 역사로 통하는 KLPGA 챔피언십이 새로운 40년을 향해 힘찬 닳을 올렸다. 대회 슬로건 ‘아름다운 도전은 역사가 된다’는 외침처럼 메이저 왕관을 향한 여망들의 도전이 불꽃을 튀긴 대회 내내 술한 이 야깃거리가 탄생하며 새로운 앞날을 향한 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새로운 40년

KLPGA 챔피언십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로얄 컨트리클럽(현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제1회 프로 테스트를 통해 강춘자와 한명현, 구옥희, 안종현이 1~4번 순서로 프로 자격을 획득했고, 8월 김성희와 이귀남, 배성순, 고용학이 추가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8명의 여성프로 1세대가 탄생했다.

한 달 후인 9월 20일 한양 컨트리클럽에서 사상 첫 대회인 KLPGA 선수권이 막을 올렸다. 현재 명칭인 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과 달리 한국프로골프선수권 여자부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 대회에서 한명현이 구옥희와 강춘자를 제치고 초대 챔피언이자 KLPGA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이후 한국프로골프선수권 여자부는 KLPGA 선수권과 KLPGA 챔피언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고우순의 4회 최다 우승, 구옥희의 3회 연속 우승, 배경은의 최연소 우승 등 각종 기록들이 KLPGA

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 주요기록			
부문	선수	연도	비고
최다 우승	고우순	1990·1992·1994·1996년	4회
최다 연속 우승	구옥희	1980~1982년	3년
역대 최연소 우승	배경은	2001년	16세 4개월 20일
최다 타수 역전우승	백규정·안신애	2014·2015년	7타차

GA의 역사를 가득 채웠다.

●역사를 이어가는 선수들

지난해 마흔 번째 생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KLPGA 챔피언십은 올해 대회에서 새로운 40년을 기약했다. 41년 전, 전설들이 프로 자격을 처음 얻었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그 역사를 이어받은 주인공은 새 얼굴의 여왕, 최혜진(20·롯데)이었다.

2017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2승을 챙긴 뒤 지난해 프로 데뷔와 함께 대상과 신인왕을 모두 거머쥔 최혜진은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왕관을 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간 우승 직후 좀처럼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국가대

표 시절 자신을 가르친 박소영 코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뜨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외 투어에서 활약 중인 스타플레이어들의 출전으로 규모가 더욱 풍성해졌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이정은(23·대방건설)와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 뛰어난 배선우(25·삼천리), 역시 함께 열도에서 활약 중인 윤채영(32·한화큐셀)이 출전해 아름다운 도전을 펼쳤다. 의류 스폰서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 나들이를 막한 특급 골퍼들의 가세로 41회 KLPGA 챔피언십은 새로운 40년을 더욱 힘차게 기약할 수 있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건강하고 안전한 등반 문화 보급 앞장”

한국암벽등반가이드협회 창립총회

표준 매뉴얼 제작·가이드 교육
선진 시스템 도입 산악사고 예방



한국암벽등반가이드협회(KOREA MOUNTAIN GUIDE ASSOCIATION·이하 KMGGA)가 28일 서울 쌍문동 도봉민생상당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등반문화 보급을 위한 KMGGA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더 건강한 등반, 더 안전한 등반, 더 의미 있는 등반을 목표로 출범한 KMGGA는 창립 총회에서 협회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KMGGA는 앞으로 안전한 등반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한 등반 가이드 자격증 발급, 가이드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일반인을 위한 특별 이벤트 교육, 자연암벽 등반대회 개최, 한국 암벽 등반 안에서 발급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MGGA는 산악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가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격히 증가



등산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내에도 암벽등반에 대한 선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사진제공 | 한국암벽등반가이드협회

하는 한국의 등산인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구조 출동 건수는 총 4645건, 구조인원은 3627명이었다. KMGGA 측은 “구조출동 총계와 구조인원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구조요청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무분별한 구조요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실족이 1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환은 472건이었다. KMGGA 측은 “실족사고는 자일이 없는 위험한 등반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이드의 통제로 끌어들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질환에 대한 통계에서 대해서는 가이드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